

‘종정교시’ 일파만파

청사절거 선거국면 급변

●...10월 24일 조계종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던 종진, 덕수, 동국스님 등 28명의 스님이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면서 선거국면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들 스님들이 ‘종정교시’를 내세워 총무원장 3선 반대와 사면복권을 주장하다 총무원이 요청한 공권력에 의해 전원 종료경찰사로 연행되며 사회여론의 초점이 된 것. 총무원을 점거한 스님들은 조계종 제적 7명, 제적 말린 등의 징계 7명, 무적 14명 등으로 파악됐다. 총무원은 24일 밤과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해종행위자들이 선거를 틈타 복권을 하려는 기도’라 일축했다. 연대회의는 오후2시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이 무기력하게 청사를 점거한 것과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중단 위상 실추를 강력 비난했다.

정우스님에게 ‘교시’ 구술

●...24일 총무원 점거때부터 ‘종정교시’와 관련 모두 4건의 문건이 나왔다. 청사 점거와 함께 나온 ‘조계종에도 고향, 교시’ 문건은 점거 스님들이 월하스님의 평소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을 더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25일자로 발표된 월하스님의 ‘확인서’는 경찰에 연행된 28명의 스님들이 사법처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월하스님이 친필로

조계종 선거

써 경찰관계자에게 보낸 것이 언론에 유출된 것. 또 총무원측이 25일자로 발표한 ‘본인에 대한 입장과 98년 10월 24일자 종정교시’ 문건은 총무원이 통도사에서 총무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통도사 총무소에서 월하스님 뜻을 받들어 만든 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월하스님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정우스님에 의해 대독된 ‘종정교시’는 월하스님이 정우스님에게 구술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스님이 대독한 ‘종정교시’의 내용은 △총무원장 3선 부당 △종헌종법 전향적 개정 △종정선거 선별 사면 △근본 계율에 위배된 자의 종무행정 수행 시정 △모든 종도들은 제2의 정화불사 하는 마음으로 중단 바로 잡길 바란다 등이다. 월하스님은 ‘종정교시’에 대해 총무원이 ‘종정’이란 문구가 없는 점 등을 들며 의구심을 나타낸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종정’이라는 문구를 첨부했다.

“종헌종법대로 종무행정”

●...월하스님의 ‘종정교시’에 대해 총

무원들은 “종헌종법대로 종무행정을 수행해 나가며 선거도 일체로 치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총무원장 월하스님이 29일 답화문을 발표, 개혁종단의 정통성과 종헌 질서유지의 의지를 보였다.

교계 일각에서는 월하스님이 평소 종정이 아니라고 말했던 점을 들며 “새삼스러운 권한행사가 아니냐”는 반론도 퍼고 있다.

원로회의 개최설도 거론

●...27일 정우스님이 월하스님의 ‘종정교시’를 발표한 직후부터 원로회의 개최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효림스님은 “당초 원로회의가 30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총무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 연기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의장 해암스님은 원로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3선복권에 대한 입장도 종정스님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월하스님이 후보 등록을 해야 3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원로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암스님 사자 각안스님은 “해암스님은 현 상황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도 시기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선스님 출마 공식표명

●...지선스님이 28일 오전11시 총무원 청사 1층에서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출마 고백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이날 ‘대화합의 중단운동 및 종무혁신’ 등 7개분야 70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10월 24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점거했던 스님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지선스님의 공식 출마 선언은 설조스님에 이어 두번째.

월하스님은 추대위의 추대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월하스님은 교계와 일반 언론의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지며 출마의사와 주요 정책을 밝히기도 했다. 지선스님도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비추고 있다.

“3선 적부판단 먼저” 여론

●...3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헌종법에 근거한 ‘적부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를 심판할 수 있는 법규위원회에는 아직 3선관련 심판 청구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지 않는 것과관련 연대회의 측은 “3선은 법의 논리에 앞서 수행자의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월하스님측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심판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성명서-기자회견 잇달아

●...이번 선거에서는 전례없이 많은 성명서와 광고, 기자회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3선문제’ 등에 대한 교계의 여론이 뜨겁게 달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 특히 24일 총무원 점거 사건 이후에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더욱 빈번해져 각 후보진영과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선반대 오체투지 법회

●...총무원장 3선반대 범불교연대회의는 30일 오후 2시 ‘월주 총무원장 3선 출마강행과 부정선거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참회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과 ‘원로대덕스님들께 올리는 글’을 통해 “종정교시를 받들 것”을 천명하고 “월하스님은 3선 출마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임연태 기자(yitim@buddhapia.com)

월하스님 전화 인터뷰

“평소 생각과 동일하다”

월하스님은 10월 29일 오후3시 40분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종정교시’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스님들이 총무원 청사에 들어 간 것은 나중에 알았다. 종로경찰 서장이 연락을 해서 몇명의 스님들이 종정교시를 수행한다고 총무원에 들어 갔다가 연행이 됐다고 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경소에 말했던 점이 있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서를 써서 보내 주었다. 누구든지 간에 내 의견을 주장하다가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영장담당 관사에도 전화를 해서 다 좋은 소리를 한 것이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관사에게 내 뜻을 말했다더니 잘 알겠으며 잘 처리되도록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스님들이 총무원에 들어갈 때 발표했다는 교시는 내가 그들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진 것인가 잘 모르지만 내용은 평소 나의 의견과 동일하다. 총무원에서 사면권 문제, 중단 재산권 문제 등을 들어 발표한 내용도 내가 평소 말한바 그대로다. 그런 문건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정우스님이 발표한 교시는 내가 그 스님과 함께 앉아서 말해 준 것이고 그 내용도 나의 평소 생각 그대로이다. 임연태 기자

나라가 썩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악취가 날 정도입니다. 쓰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될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륜이 땅에 떨어져 윤리도덕이란 말이 간 곳 없습니다.

국회가 썩고 정치권이 썩어 개관이란 말이 나온지 오래됐습니다. 나 라적정보다 권력에 눈멀고 재물에 눈멀어 서로 혈투고 부정한 돈이 오 가고 있습니다. IMF로 가슴아파하며

잠 못 이루는 정치인이
겻이나 뭇가요. 청렴해
야할 공무원들까지 썩
고있고, 신성한 학교도

목어

스님들께

국민들은
눈쌀을 찌푸리다 못해 속상해하고
목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국민들은 또 어찌합니까. 제
알 행거기에 비합니다. 나만 좋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소
식보다 나쁜소식이 훨씬 더 많이 생
깁니다.

어찌다 숨은 보살들이 있어 호뭇
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일들이 나
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겠죠.

중생의 가슴 가슴마다 보살심이
잠재되어 있다면서요. 그것만이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의 한국불교는 어떻습니까, 썩

고 있는데 빠질세라 동참하고 있지
는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정법을 일러주고 국
민을 교화하여 ‘마음청정·국토청
정’의 스승이 되어야 할 불교가 과
연 재물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총무원장 자리가 무엇이길
래 세인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
인단 말입니까. 세인들이 보기 민망
하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비난이 나
오고 등 돌려 불교를 외면하면 어찌
시렵니까.

총무원장 선거를 종
헌종법으로 해결안되면
부처님법대로 하면 될
텐데요. 만약 그렇게
못하면 한국
불교의 모습,
조계종의 모

습이 우습게 됩니다.
선거뿐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야
할 일이 한두건이 아니지만 우선 당
면한 문제만이라도 슬기롭게 풀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
다.

조계종 스님들께선 잠시 숨을 들
려 선거는 물론 일체의 생각을 놓고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동안 갈고 닦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 산사의 향기와 함께 되살아 날
것입니다. 그것이 스님들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간성 하옵시다.

“한국 개신교도 전체, 목회자들, 신학
자들은 금번 훼손사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용기를 지녀야 할 것
이다.”

개신교계의 대표적 권위자인 월간 <기
독교사상>(발행인 김상근 목사, 기독교교
회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이 최근 발행된
11월호에 사찰 방화와 불사 파과 등 훼손
문제를 60쪽에 걸쳐 특집으로 다루고 개
신교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독교
사상>이 개신교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
지 않아 개신교계내에서 훼손사건의 근본
적인 원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와의 성숙한 관계, 익은 신앙”이
라는 큰 제목을 붙이고 ‘기독교와 불교는
적대관계인가 협력관계인가’(김경재 한
신대 교수)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만의 것 배타적 신앙교육등 반성
’ ‘기독교
담사 주지’ ‘새로운 시대의 요청으로서의
종교간의 이해와 협력’(오강남 캐나다 리
자이대학 종교학 교수) ‘한국교회와 종교
적 배타성의 문제’(이원규 감신대 교
수) ‘누가 하늘을 독점할 수 있는가’(고
진하 목사, 시인)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

또 82년 5월~88년 8월 사이의 훼손일지,
‘종교간의 이해와 협력’을 주제로 김지
길, 이종성, 장기현 목사 등 개신교 지도
자 39인의 종교간 화합을 당부하는 간곡한

“개신교도·목회자·신학자들 훼손사건 진지하게 성찰하라”

월간 ‘기독교 사상’ 11월호 ‘훼손특집’ 실어

호소문도 실었다.

특히 김경재교수는 “제주 원명선원 훼손사건은 그동안 누락되었던 한국 개신교의 신앙교육과 선교신학과 설교의 경향성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이 표출된 것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개신교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바르게 풀어나가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정신적 성숙이나 문화창달도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도대체 누가 김수진씨(제주 원명선원 훼손사건 범인)로 하여금 이러한 신자가 되게 만들었는가” 묻고 “근본주의자들의 근본교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종말론, 사이비 순교신앙으로 순진한 교인들을 부추기고 세뇌시켜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짓 지도자들을 엄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신교인에 의한 훼손사건 발생원인을 △개신교의 순수신앙 변질 △문자에 얽매인 성경해석에 있다고 진단한 김교수는 “한국 개신교인들은 종교적 상징이 무엇인가를 배운 적도 없고, 오로지 문자적 성경무오설(聖經無誤說)에 의해서 교육되었다”며 종교상 징표에 대한 폭넓은 종교화합담부 호소문도 교인이 저지른 훼손사건에 대하여 기독교가

에 바탕한 새로운 신학의 정립을 촉구했다.

개신교계가 이같이 권위자의 지면을 빌려 훼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김경재교수의 지적처럼 ‘훼손 문제를 바르고 건전한 양식과 진정한 복음적 신학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다른 사회단체들로부터 배타적, 독선적 집단’이라고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신교

계의 최대 교단인 장로회 소속의 교인에 의해 원명선원 훼손이 일어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또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기독교(특히 개신교)의 경우 일반적인 시대 추세와는 달리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상을 반전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1997년 11월)을 보면 종교의 교리 차이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수용적인 태도의 비율이 84년 64.6%에서 81.7%로 오히려 낮아졌다. 개신교인 10명 중 7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불교인의 경우는 80.1%에서 87.0%로, 무종교인은 79.9%에서 84.2%로 증가했다.

민영진 <기독교사상> 편집위원장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독교인이 저지른 훼손사건에 대하여 기독교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불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길을 신학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땅히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해 조계종교무원과 종교평화대행위원회는 “스스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과 공격성의 지양을 호소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삼화분

— 해종행위자들의 준동은 척결되어야 합니다 —

존경하는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선거시국을 틈타 과거 중단사 속에서 분규를 조정하고 승가의 화합을 깨뜨려왔던 일부 해종행위자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해종행위로 이미 제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들로서 개혁종단 출범 이후 안정된 종단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설 자리를 찾지 못하다 자 중단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끼어들므로써 자신들의 중단 내 입지를 다시 세우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무모한 의도에 부화뇌동하여 현재 많은 중도들의 참여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시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부대중의 염원과 헌신 속에서 이룩된 94년 종단개혁의 의의와 성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개혁종헌을 개혁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려는, 중도들의 의지와 이익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와 지난 2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던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도들과 법원으로부터 검증받은 본인의 원장출마 자격문제까지 계겨론하며 지난 4년 동안 정상적으로 수행한 종무행정의 결과마저 부정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단의 발전과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략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종단개혁의 성과로 출범한 제28대 총무원은 중도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의미에서 임기 동안 해종분자들

을 상대로 취해왔던 엄중한 입장을 흔들림없이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며 결코 중단에 혼란과 분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번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정착되고 안정과 화합의 토대가 갖춰진 바탕 위에서 중단발전과 21세기 확대된 불교의 역할을 전 중단 차원에서 모색해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따라서 중도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앞으로의 중단 진로를 결정하는 중재선거의 풍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중도들을 실망시키고 전통종교로서의 불교를 아끼고 자랑스러워 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종행위자들의 의도에 동조하고 중도들의 가슴과 종단의 역사에는 또 한번의 되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유발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야기시킨 단초가 되었던 특정후보 출마자 선거의 시기가 특정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부정적인 선거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종헌종법의 테두리를 무시하고 종단체제를 뒤흔들려는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종단행정의 수반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연대회의’의 일부 후보진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근 행보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

다.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 해종행위자들의 사면 복권을 주장하는 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해종행위자들과 나란히 서서 개혁종단과 개혁종헌의 정통성을 문제삼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원로와 중진스님으로부터 이런 주장에 동조해달라는 서명을 받으려 다니는 등 실질적인 해종행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과정에서 일탈하여 집단적인 폭력과 대중동원으로 종무행정을 마비시키고 종정을 중단케 하려는 의도도 간파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은 기필코 이러한 의도가 관철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것이며 추후 예견되는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모든 해종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대화합을 염원하시는 원로 대덕스님 그리고 중도 여러분!
종단은 이미 4년 전 끈질기게 발목을 낚아채던 종단의 분규사로부터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21세기 비약적인 발전의 궤도로 진입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총무원은 원로 대덕스님과 중도 여러분의 바램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종헌종법대로 선거를 치뤄나갈 것입니다. 결코 종정이 마비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끝으로 종단개혁의 소중한 의의와 개혁종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분들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행보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불기 2542년 10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